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는 정지하고 때로는 뒷걸음질치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앞으로 전진한다는 사실이다. 박정희의 5.16쿠데타, 삼선개헌, 유신헌법, 긴급조치, 10.26, 12.12, 5.17쿠데타, 5.18광주 민주화 항쟁, 87년 6월항쟁, 2001 평양정상회담... 독재 권력은 무한계도를 질주하고 역사는 뒷걸음질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부도덕한 권력은 파멸하고 정의가 승리했다. 역사는 한걸음씩 한걸음씩 전진해 온 것이다.

1979년 서울대 지하신문 사건의 전후



한 철 희_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76학번, 돌베개 대표(현)

1979년 전반기의 상황과 지하신문의 구상

1979년이 되면서 유신체제는 종말을 향하여 치닫게 된다. 그러나 79년 전반기만 해도 상황은 참으로 암울했다. 중앙정보부는 4월 초 크리스찬 이카데미사건을 발표하며 수십 명의 민주인사를 구속하는 등 유신정권의 폭압은 극에 달했다. 학생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은 일시적인 침체와 소강상태에 빠져 있었다. 어둠의 긴 터널이 이어질 뿐 출구는 보이지 않는 듯했다.

상황의 암울함은 무력감을 주기도 하지만 실천의 절박감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4학년이 된 나는 3학년 2학기 이래로 싸안고 있던 해묵은 고민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3학년 여름에 모종의 사건으로 관악경찰서에 잡혀가 보름 정도 조사받은 뒤 유기정학을 맞은 일이 있었다. 그 이후 약간의 슬럼프 상태에 빠지면서 자신의 진로문제를 꽤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막연한 고민에 휩싸여 머뭇거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야 했으며 4학년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거취를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었다.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생각을 단순화했다. 대학에 들어온 이후 선 후배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배웠던 이론과 지식을 토대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최선의 것으로 간주하고 따르기로 했다. 그것이 나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는 방식이었다. 사실 그 결론은 뻔한 것이었다. 그때의 그 상황이 학생운동에게 요구하는 것에 응답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어쩌면 그것을 회피할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를 찾기 위해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 그 상황 속에 있는 한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오랜 고민을 털어버리니 마음이 홀가분하였다. 아마 4월경이었을 것이다.

뒤늦게 작심을 하고 인문대, 사회대의 친구들을 부지런히 만나가며 학내 상황을 파악하였다. 아무래도 1학기 중에 거사하는 것은 여의치 않을 듯싶었다. 내가 결심한 시점이 늦었을 뿐 아니라 주력으로 나서야 할 76학번 친구들 대부분이 아직 불투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내 분위기가 상황도 가라앉아 있었다. 1978년도 하반기에 역량이 과다 손실된 후과(後果)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2학기에 방향을 맞추기로 했다. 1학기를 그냥 보내고 2학기에 일을 하려면 먼저 신문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내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러시아 혁명사를 읽으면서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던 이스크라가 영향을 준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함께할 동지가 필요했다. 가까운 친구들인 고세현(국사학과 4년, 현 창비 대표), 박일용(국문과 3년, 홍익대 교수)을 떠올렸다. 먼저 고세현을 찾아가 나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고세현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하듯 반색을 했다. 둘은 곧바로 화당교 근처에 있는 박일용의 하숙집을 찾아갔다. 그 역시 흔쾌히 동의했다. 방위근무를 마치고 3학년으로 복학한 지 얼마 안 되었던 박일용으로서의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동안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기투합한 우리 셋은 밤새 통음하며 그동안 쌓인 고민의 중압감을 씻어 내렸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지하신문 작업의 구상과 준비에 들어갔다. 5월 초였을 것이다.

동인천역 앞 여관방에서 만든 카터 방한 반대 유인물

이렇게 신문 만들 팀을 구성하고 준비하고 있던 5월 중순 어느 날, 이원주(사대 국어과 4년)를 만났다. 그는 1학기 중의 시위를 주동할 팀을 꾸리기 위해 부심하고 있었다. 나에게도 시위팀에의 합류를 요청했으나 신문팀을 준비하고 있는 나로서는 참여하기 어려웠다. 나는 간략하게만 나의 구상을 밝히고 측면 지원을 약속했다. 당시는 지미 카터 미대통령의 6월 말 방한을 앞두고 있던 시점으로서 학생운동의 정치적 대응이 필요한 국면이었다. 그러나 시위팀 구성의 실패로 1학기 중의 시위계획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렇게 1학기가 아무 일 없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6월 말로 예정된 카터의 방한 시점이 다가오자 나는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작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을 그대로 보낸 채 2학기에 가서 무슨 일을 할들 무슨 의미가 있으랴 싶었다. 그래서 시위계획은 무산됐지만 유인물이라도 뿌리기로 했다. 같은 과 친구인 윤옥준과 함께하기로 했다. 이미 고세현, 박일용과 함께 지하신문팀을 구성하여 가동하고 있었지만 이 일은 알리지 않고 별도로 진행했다.

6월 20일 전후로 기억된다. 인문대의 76학번 동기 8, 9명이 양평으로 MT를 간 적이 있었다. 1학기의 침묵에 대한 반성과 자책이 우리들 각자를 내리누르는 무거운 분위기였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당시의 정치정세와 학생운동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거쳐 차례로 돌아가며 각자의 진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이었다. 나는 이미 지하신문팀을 가동하며 2학기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학생운동의 당면한 임무와 구체적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였다. 참석자 다수가 그러한 상황 인식에는 공감하였지만 적극적인 태도 표명에는 아직 유보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 MT를 계기로 인문대의 76학번 동료들이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어나가게 되며, 이후 방학중에 일어난 YH사건은 그러한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평 MT를 끝내고 돌아온 바로 그 날이었다. 저녁 무렵 동인천역 앞에서 윤옥준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종로 근처에서 등사기를 사가지고 전철을 타고 동인천역으로 갔다. 문방구에서 등사기를 사서 포장지로 대충 싸 상태였는데 그제 제법 커서 사람들 눈에 잘 띄었

다. 곳곳에서 검문도 많았던 시절이라 중간에 검문에 걸리지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거리에서나 전철 안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온통 내가 들고 있는 등사기에로만 쏠리고 있는 것 같았다.

동인천역 앞에서 윤옥준을 만나 근처의 여관에 들었다. 워낙 급하게 계획된 터라 아직 유인물의 원고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원고를 작성하고 그 사이 윤옥준은 눈을 붙였다. 12시가 넘어서야 원고가 완성됐다. 당시 카터 대통령은 이른바 인권 외교를 내세우며 유신정권과 약간의 긴장관계에 있었다. 카터가 표방하는 인권 외교란 본질에 있어서 제3세계에 대한 신식민주의적 지배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며 카터의 방한은 결국 유신정권에 대한 국제적 지지로 귀결될 거라는 요지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자딘 윤옥준을 깨워 등사작업에 들어갔다. 밤샘 작업 끝에 400매 가량을 만들었다. 서서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유인물 파지들은 조심조심 태워 없애고 남은 등사 잉크는 변기통에 버리는 등 뒷정리를 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내려도 시커먼 등사 잉크가 등등 떠서 내려가지 않는 것이었다. 잉크가 기름 성분이니 물 위에 등등 떠 있을 수밖에. 할 수 없이 그대로 든 채 짐을 챙겨 서둘러 여관을 빠져나왔다.

우리는 전철을 타고 구로역에서 내려 당시 근처에 있던 윤옥준의 형님댁으로 갔다. 등사기는 거기에 숨겨놓고 유인물을 나누었다. 다음날(6월 23일경) 국문과 후배인 김운태와 함께 셋이 지역을 나누어 뿌렸다. 그러나 반향은 그리 크지 못하였다. 학내에 골고루 잘 뿌려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기말시험 끝자락이어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유인물을 통해서라도 카터 방한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또 급조에 따른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을 무사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하신문 1, 2호의 발행과 1, 2차 시위투쟁

여름방학을 맞으면서 지하신문 발간작업을 본격화하였다. 우선 안전한 작업 공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타자기와 등사기 등의 기자재도 갖춰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군자금도 필요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확보한 돈이 약간 있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랐다. 박일용이 광화문에서 서점을 하고 있던 김태경 선배로부터 약간을 얻어왔고 모 여

학생에게서도 일부 지원을 받았다. 지원을 얻기는 했지만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함구하였다.

여름 내내 철산리와 구로동 일대를 수차례 훑고 다닌 끝에 가리봉동에 방을 구했다. 평소에는 비워둔 채로 있다가 가끔씩 드나드는 것이 수상쩍어 보일까봐 하숙을 하고 있던 박일용이 아예 거처를 옮겨 지취방으로 겸용했다. 작업 공간의 확보와 더불어 타자기, 등사기 등을 장만함으로써 지하신문 발간을 위한 하드웨어는 구축된 셈이었다.

우리는 신문의 성격과 기본적인 편집방향을 몇 가지 설정하였다. 우선 제호를 '지하신문'이라 정하고 나름의 연속성을 갖는 매체로서의 형식을 취했다. 대상 독자는 일반 학생 대중이 아니라 의식 있는 학생들을 중심에 두었다. 말하자면 일반 대중을 향한 선동지가 아니라 의식 있는 대중을 향한 선전지였던 셈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1호의 내용을 기획하고 원고를 작성하였다. 첫호였던 만큼 우리의 지하신문이 대학의 진정한 언론임을 자임하는 '창간의 변'을 밝혔고, '현 정세와 학생운동의 임무'라는 제하의 사실 형식의 글을 실었다. 사실은 제목 그대로 당시의 정치정세를 분석하면서 학생운동의 당면한 임무로서 반유신투쟁의 절박성을 강조한 내용이었다.

당시 정세는 여름을 지나면서 급변하고 있었다. 8월 초순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이 기업주의 위장 폐업에 항의해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중이었는데, 경찰 수천 명이 당사에 난입해 무차별 진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폭거의 와중에서 노조위원장이던 김경숙 양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으며 농성중인 여성노동자들은 물론 취재기와 야당 의원들까지도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다. 유신정권은 바야흐로 말기적 증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사건은 반유신투쟁을 확대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렇게 작성된 원고를 가지고 인쇄 작업에 들어갔는데 타자기를 두들겨 등사용 원고를 만드는 것은 실로 진땀나는 일이었다. 밖으로 소리가 새나갈까 봐 더운 여름날인데도 방문을 뚝뚝 닫아걸고 작업하였다. 창문 등에는 이불까지 둘러쓰운 채 라디오 소리를 크게 켜놓거나 수도꼭지를 틀어놓기도 하였다. 그래도 딱딱딱딱 타자 치는 소리가 마치 무전 치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을 졸였다. 서툰 타자 실력이다 바깥에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하루 종일 걸려서야 겨우 타자 작업을 마쳤던 기억이 난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지하신문 1호가 드디어 탄생하

였다. 그 당시만 해도 유인물 작업에서 타자기 사용이 일반화되지는 않은 시점이었는데 우리의 지하신문은 나름대로 신문의 꼴을 갖추며 제법 선명한 인쇄상태를 자랑하였다.

배포시점은 개강 직후인 8월 말로 잡았다. 객관 정세의 급변에 따라 학내 분위기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서였다. 배포 작업에는 우리 셋만이 아니라 후배들인 염인호(사대 역사교육과 3년, 현 서울시립대 교수), 윤승용(국문과 2년, 현 한국일보 정치부장), 유동환(독문과 2년, 현 푸른나무 대표)이 함께했다. 믿음직스러운 후배들이었던 그들은 의연하게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큰 몫을 하였다.

우리는 배포방식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취했다. 즉 기관원이나 수위 아저씨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밀집한 지점들을 선정하여 집중 배포하는 방식이었다. 이를테면 의식 있는 학생들이 몰리는 강의실이나 도서관의 참고열람실 등이 그 대상이었다. 수거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위험도 줄일 수 있는 방식이었다. 우리의 이러한 전략은 주효하였다. 우리의 지하신문은 순식간에 의식 있는 학생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어떤 그룹에서는 사설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도 했다.

8월 28일에 지하신문 1호가 나오고 9월 11일에 1차 시위투쟁이 있었다. 1차 시위 뒤인 9월 18일 경 지하신문 2호를 제작하여 다시 살포하였다. 2호에는 1차 시위투쟁에 대한 기사와 더불어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제명 이후 고조되고 있는 정국상황을 분석하였다. 당시 김영삼 총재에 대하여 총재직 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였는데 가처분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법률 서적들을 뒤적이며 씨름했던 기억이 난다.

9월 20일에는 2차 시위투쟁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고조되어 수천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지하신문의 배포와 시위투쟁의 전개가 적절한 시차와 간격을 두고 긴밀히 조응됨으로써 학내 분위기와 투쟁 열기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2차 시위 이후에는 주동자가 없는데도 시위가 자연발생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9월 21일에는 인문대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체육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행렬이 시위대열로 변하여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학내 곳곳에서 투석전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등 학교가 통제 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2학기 들어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자연발생적 시위가 발생하는 등 통제 불능의

상황에 이르자 당황한 당국은 지도휴학 조치를 발표했다. 지도휴학의 명목으로 3, 4학년의 문제학생들을 대거 강제 징집시켜 시위 발생의 근원을 뿌리뽑겠다는 의도였다. 이제 상황은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었다. 뭔가 보다 강력한 투쟁이 요구되고 있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지하신문 작업을 접기로 했다. 지하신문이 이미 그 역할을 다했으며 더이상 필요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1호 발행 직후부터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로 압박해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활동을 종료함으로써 경찰의 수사는 영원히 미궁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완전범죄(?)를 확신했다.

사실 유인물 작업은 시위 주동에 비하여 훨씬 힘들다. 시위 주동은 디-데이의 시나리오를 짜고 역할 분담하여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단기전이라면, 유인물 작업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장기전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감시망을 뚫고 임무를 수행하는 비합법적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해야 할 뿐 아니라 항상적인 긴장 상태에서 시시때때로 엄습해오는 불안과 초조를 견뎌내야 한다.

지하신문의 종간과 더불어 지하신문팀을 해체되고 난 뒤, 남아 있는 76학번 다른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 시위팀이 구성되었다. 1, 2차 시위투쟁으로 대부분의 친구들이 구속되고 나, 고세현, 이원주, 권희도 정도가 남아 있었다. 9월 말경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멀리 송추까지 가서 1차 준비모임을 갖고 대략의 역할 분담을 하였다. 당시 지도 휴학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한 3차 시위계획이 10월 중순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우리는 11월 3일 학생의 날에 맞춰 4차 시위투쟁을 전개하고 2학기를 마무리짓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4차 시위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교외 유인물팀 사건의 불똥이 튀면서 나와 고세현이 차례로 잡혀 들어갔고 그 이후 10.26의 발생으로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었다.

교외 유인물 사건의 불똥과 구속

10월 5일, 추석날이었다. 고향집에 내려와 있었는데 “급상경”이라는 전보가 날아들었다. 고세현이 보낸 것이었다. 교외 유인물팀에서 사고가 터진 것을 직감하였다. 교외 유인물팀의 주동 멤버는 윤옥준, 전동균(치대 4년), 고영목(교육학과 4년), 송경평(공대 4년) 등이었는데 대략의 활동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에 급상경하여 확인해보니 예상했던 대로였

다. 추석날 서울 시내 몇 군데 극장가에서 유인물 작업을 했는데 영등포 경원극장에 들어갔던 팀이 잡히면서 줄줄이 잡혀갔다는 것이다.

내 이름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우선 1학기에 만들었던 카터 방한반대 유인물의 필적이 윤옥준의 것이기 때문에 필적 감정시 드러날 것이 확실했다. 또한 교외 유인물팀을 일부 지원했던 대목도 노출될 소지가 있었다. 한 10일 가량 피해 있으며 동태를 살폈는데, 잠복이 해제된 듯하였다.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경찰의 수사 관행과 메카니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안이한 판단이었다.

내가 밤늦게 들어간 다음날 새벽 경찰이 들이닥쳤다. 계속 잠복중인 상태였던 것이다. 10월 15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후 약 보름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미 밝혀진 다른 유인물 사건들과의 직간접적 관련만이 아니라 지하신문 사건의 전모도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10월 24일 경 고세현, 박일용, 유동환이 연행되어 왔다. 염인호와 윤승용은 도망 다니다가 10.26이 나는 바람에 구속을 면했다.

당시는 남민전 사건이 발표된 직후였는데 이와 관련 여부도 수사상 초점의 하나였다. 영등포서에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듯하던 10월 24일경 우리는(나, 고세현, 박일용) 남산 중턱에 있는 안가로 끌려갔다. 남대문시장을 지나 퍼시픽호텔을 끼고 언덕을 오르다 중턱에 차가 섰다. 오른쪽에 퇴락하여 방치해 놓은 듯한 2층 건물이 있었다. 창문은 너털거리고 벽의 칠은 벗겨진 상태였다. 추측컨대 시경의 조사실이었던 듯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배후와 자금 등에 대하여 집중 조사를 받았다. 고세현과 박일용도 여기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다.

조사중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다. 수사관이 배후 관계를 계속 추궁하다 끝내 부인하자 내가 썼던 글을 기억해내서 써보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조사받느라 정신이 혼미해진 탓인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다. 만약 써내지 못하면 정말 배후가 있는 것으로 몰릴 판이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이 있었다. 그 사이 껌싸게 수사관의 서류봉투를 훑쳐보았다. 그 속에는 우리가 만든 지하신문의 내용을 인쇄해놓은 수사용 자료가 있었다. 빨간 줄이 여기저기 그어진 그 자료의 첫머리를 보자 대강의 논지와 내용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가슴을 쓸어내린 순간이었다.

여기서 이를 정도 지났는데 조사가 끝났는지 영등포 경찰서에서 우리의 신병을 인수하려

왔다. 그 지긋지긋했던 영등포 경찰서의 형사들이 그 순간에는 마치 고향에서 온 형님처럼 반가웠다. 고세현은 물 먹이기를 당했던 듯 머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다. 가슴이 저렸다. 차에 오르기 전 남산 중턱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서울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산뜻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리고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그 날이 바로 10월 26일이었다. 영등포서로 돌아와 그 다음날 마지막 조서를 썼는데 술이 덜 깬 담당 수사관이 박정화가 죽었다고 알려주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 같았던 유신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그 뒤 나는 영등포 구치소로 이송되었다가 면소 처분을 받고 11월 말경 풀려났다. 고세현, 박일용, 유동환은 12월 8일 긴급조치9호 해제와 함께 석방되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의 일들은 하나의 작은 저항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옛날의 기억들을 더듬자니 마치 진술조서를 다시 쓰는 듯한 심정이다. 그때는 맞으면서도 가능한 한 숨기려 했고, 지금은 진실하게 드러내려는 것이 달라졌을 뿐. 그러나 나의 진술은 풍화된 기억들에서 건져 올린 단편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함께했던 공범들의 추가 진술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공범들은 그 뒤 바쁘게 살다 보니 한번도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다. 언제 함께 모여 이제는 추억이 돼버린 그 옛날을 대질 심문하며 소주라도 한잔 나누고 싶다. 그리고 유일한 물증인 지하신문은 어디에 있을까? 경찰서의 자료 터미속 어딘가에 파묻혀 있을 그 지하신문을 한번 보고 싶다.